

LG, 인도법인 14일 현지증시 상장 “최대 1조8000억 자금유입 기대”

구주매출 통해 조 단위 환수
IPO 자금, 투자·M&A 본격화
확보 자금, 주주가치 제고도
인도 가전시장 잠재력 주목

LG전자 인도법인의 지분 15%에 대한 공모가 밴드(범위)가 최소 1조 7384억원에서 최대 1조 835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주당 공모가는 최소 1만7000원(1080루피)에서 최대 1만8000원(1140루피)이다. 처분 예정일자는 오는 13일이고, 최종 상장일은 이보다 하루 뒤인 14일이다.

LG전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인도법인 상장 최종 승인을 받아 지분 15% 처분금액과 처분예정일자를 1일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보수적으로 밴드 최하단 가격인 1조 7384억원을 기준으로 공시됐으나, 실제 처분금액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공모가 최상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LG전자 인도법인인 최대 12조원 이상 기업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이는 인도 증시에 상장돼 있는 피어 그룹(비교기업)의 시가총액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IPO는 신주 발행없이 LG전자 본사가 구주매출로 매각자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하루 전인 30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인도법인



사진은 스리시티 공장 조감도.

/뉴시스

주식 15%(1억 181만 5859주)의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IPO로 일시에 유입되는 조단위 자금의 활용처 역시 주목받고 있다. 유력한 것은 지분투자, 인수합병 등 미래성장 차원의 투자여력 확보다. LG전자가 선택과 집중 기조 아래 B2B(기업간거래) 등 질적 성장 영역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고 있는 만큼 5년, 10년 후 경쟁우위 달성 관점에서 유망 영역을 중심으로 미래성장 가속화와 본원적 경쟁력 강화 관점의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확보자금의 일부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 가전시장은 14억 인구나 높은 경제성장률로 고속성장이 기대된다. 가전 보급률도 낮아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고 있다. 주요 가전 보급률은 냉장고 40%, 세탁기 20%, 에어컨 1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된다.

LG전자는 지난 1997년 인도 시장 진출 이후 28년간 인도 전역에 걸쳐 철저한 현지 완결형 사업체제를 구축해 왔다. 현재 LG전자는 인도에 2개 생산기지과 51개 지역 사무소, 780여 개 브랜드숍을 운영 중이다. 남부 스리시티 지역에는 기존 노이다, 푸네 공장에 이은 세 번째 생산기지도 구축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 ‘스탠바이미2’ 뉴욕 브렉땅 특별 전시

예술·순환성 주제 이달말까지 진행
이동식 스크린 프리미엄 유통 진출

LG전자가 라이프스타일 TV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한다.

LG전자는 ‘LG 스탠바이미2’를 미국 뉴욕의 명품 백화점 ‘브렉땅’에 특별 전시한다고 1일 밝혔다.

뉴욕 브렉땅 백화점은 프랑스 럭셔리 리테일 브랜드 브렉땅이 지난 3월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로 최근 뉴욕 월 스트리트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까다로운 브랜드 큐레이션과 고급스러운 공간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특히 전자제품을 거의 다루지 않는 공간 특성상 이번 특별 전시에서 LG전자가 참여한 것은 스탠바이미 2의 세련된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 스크린으로서 활용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전시는 ‘예술과 순환성’을 주제로 오는 10월말까지 진행된다. 지속가능성과 순환 가능한 디자인을 화두로 패션·뷰티·디자인 분야 총 16개 브랜드와 예술가들이 협업해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업사이클링, 윤리적 생산, 재활용 소재 활용 등 환경적 가치를 예술과 창의적 디자인으로 풀어내며, 브렉땅이 추구하는 ‘예술과 라이프스타일의 조화’를 보여준다.



LG전자는 ‘LG 스탠바이미 2’를 미국 뉴욕의 명품 백화점 ‘브렉땅’에 특별 전시하며 라이프스타일 TV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한다.

/LG전자

LG 스탠바이미 2는 전시 기간 동안 매장 곳곳에 설치돼, 참여 브랜드들의 스토리를 담은 약 20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를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브렉땅 백화점이 위치한 월 스트리트의 금융계 전문직들과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LG 스탠바이미 2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LG전자는 지난 7월 스탠바이미 2를 미국 시장에 출시하고 주요 리테일 매장을 중심으로 전시를 확대하고 있다.

LG 스탠바이미 2는 버튼 하나로 화면부를 스탠드와 손쉽게 분리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이동식 스크린으로, 집안 어디서든 자유롭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D현대로보틱스

AI 로봇 제어기 ‘Hi7’

안전·확장성 동시 강화

AI 모듈로 스마트 작업 환경 구현

HD현대의 로봇 부문 계열사인 HD현대로보틱스가 로봇에 AI를 접목해 작업의 안전성과 확장성을 끌어올린다.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자체 개발한 AI 기반의 안전 제어 솔루션 ‘세이프스페이스(SafeSpace)2.0’을 탑재한 차세대 산업용 AI 로봇 제어기 ‘Hi7’을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Hi7제어기는 고도화된 안전 시뮬레이션과 움직임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센서가 수집한 상황 정보를 AI가 분석해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움직임과 충격을 감지해 즉각적으로 로봇의 동작을 멈추는 등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업계 최초로 충돌 예방 기능에 라이더(LiDAR) 센서를 연동,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 보다 정밀한 안전 제어가 가능해졌다.

‘Hi7’은 협동로봇과 산업용 로봇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협동로봇의 경우 고정밀 전용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통신규격을 통해 작업범위의 확대 및 외부장비와의 연동이 가능해져, 산업용 로봇과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국내 車업계, 내수·수출 ‘성장세’

현대차, 9월 판매 37만대 전년比 8% ↑
기아, SUV 호조에 글로벌 판매 확대
르노·KG모빌리티, 실적개선 흐름 이어
한국GM은 내수·수출 모두 판매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수입차 관세 부과에도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난 9월 글로벌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한국GM은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7만229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6만 6001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3% 늘었고, 해외에서는 30만 6297대를 기록하며 6.4%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전체 판매는 10.8% 늘었다.

기아는 지난달 총 26만82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7.3%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내는 4만9001대로 28.5% 급증했으며, 해외는 21만8782대로 3.7% 성장했다. 기아의 판매 성장은 스포티지 등 레저용차(RV)가 주도했다. 스포티지는 글로벌 판매량 4만9588대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이어 셀토스 2만7052대, 쏠렌토 2만393대 등으로 RV 인기가 높았다. 국내에서는 쏠렌토(8978대)가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내수 4182대,



현대차 2026 그랜저.

수출 4528대로 총 8710대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브랜드 대표 중형 SUV 그랜저 콜레오스가 3019대(72%) 판매되며 판매 실적을 견인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달 내수 4100대와 수출 6536대를 포함해 총 1만636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39.3%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차종별로는 지난달 독일에서 글로벌 론칭을 시작한 무쏘EV(654대)와 토레스 하이브리드(392대)는 물론 토레스 EVX(1303대) 등 친환경 경차량의 판매 물량이 늘며 증가세를 이었다.

한국GM은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GM은 지난달 내수 1231대, 수출 2만2492대 등 총 2만3723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39.1% 급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오션·포스코, 차세대 함정용 강재 개발

차세대 함정용 기가급 강재 공동 개발
방호·경량화 성능확보 2~3년 내 완성

한화오션이 포스코와 손잡고 차세대 함정용 초고강도강 강재 개발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서울사무소에서 포스코와 차세대 함정에 적용할 기가급 특수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기반으로 강재 및 이용기술, 용접 재료·기술 및 이를 적용한 선체 적용 기술을 개발하는 등 총 6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차세대 함정용 기가급 강재는 전투함정, 무인수상정 등 해상 무기체계의 구조 안전성, 방호성능 및 용접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특징점을 지닌 압연강판이다. 이 강재는 함정 중량을

크게 줄이면서 방탄 성능을 높여 안전성과 승조원 생존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은 향후 2~3년 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수상함은 수면 위로 선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함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부 구조물의 경량화와 중요 구역에 대한 방탄성능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가급 강재는 일반 강재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강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홍 한화오션 특수선설계담당 상무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화오션은 포스코와 함께 글로벌 첨단 함정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며 “양사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을 제공하는 ‘특수선 종합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LG엔솔, 미국 공장 정상화 준비 총력

한미 비자 전담데스크 본격 가동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한미 정부 간 비자 논의와 관련해 미국 현지 공장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대미 투자

를 진행하는 한국 기업의 인력 파견과 비자 문제를 전담 관리하는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전담데스크는 오는 10월 중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한국 기업의 현지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구매 장비 설치·점검·보수 과정에서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원관희 기자 wkjh@